

작품 내용

제목	나이슈는 나이스(Nice)
내용	“이번 주는 나이슈입니다.” 매주 금요일 하교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푹푹한 왕 포도 반은 글쓰기 공책을 가방에 넣어 하교합니다. ‘나이슈’는 나의 이번 주 이슈라는 뜻으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한 주는 나이슈를 쓰고 한 주는 독서록을 쓰는 우리 반만의 특별한 글쓰기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일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정성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 자 한 자 정성 들여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로 뱅뱅 지우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책상 한 쪽은 지우개 가루로 만든 산이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쓴 공책을 월요일에 선생님께 제출하면 공책 아래쪽에 파란색 볼펜으로 쓰인 선생님의 답글이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갯벌에 다녀와서 쓴 글에는 “제목부터 참 재미있구나.” 중요한 회의에 다녀와서 쓴 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는 “새로운 일을 해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잘 해보자.”라며 용기도 주시며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성 들여 쓴 글쓰기 공책을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으로 베껴 쓴다면? 아무런 응원이나 답글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깊은 허탈함만 남았을 것입니다. 독서록을 쓸 때 글쓴이와 그린이를 기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공책 한 장을 채울 때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100쪽이나 되는 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인사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기록으로 전하는 것이지요. 글쓴이와 그린 이를 기록함으로써 출처를 남기고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수고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정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 마음을 지켜주는 것,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나의 생각이 담긴 ‘나이슈’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물, 나의 저작권입니다. 이처럼 친구들의 멋진 그림이나 생각도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멋지다.” 응원의 말이나 “너의 것을 내가 조금 참고 해봐도 될까?” 물어보며 친구들의 저작물도 지켜줘야 합니다. 또한, 좋은 글과 그림을 내가 창작했다고 해서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면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보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보물도 지켜주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첫 걸음입니다. 나는 이번 주도 나이슈로 저작권을 만들고 독서록을 쓰며 책을 만드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나이스(Nice)한 저작권 문화를 배우고 실천합니다.